

LG전자, 실내외 통합배송로봇 첫 선... 지형따라 최적 주행

유비쿼터스 로봇 2021

바퀴 간격 조절로 지형변화 대응
배송작업 단순화... 물류혁신 기대
“비대면 서비스, 고객 요구 부응”

LG전자가 빠르게 확대하는 배송로봇 시장에 적극 대응한다.

LG전자는 13일 강원도 강릉에서 지난 12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제18회 유비쿼터스 로봇 2021에 참가해 실내외 통합배송로봇을 처음 소개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이 로봇이 상용화되면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 수행했던 각종 작업이 단순해지면서 물류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LG전자는 실내 배송로봇을 상



LG전자는 지난 12일부터 열린 제18회 유비쿼터스 로봇 2021에서 실내외 통합배송로봇을 선보였다. /LG전자

용화하고 실외 배송로봇은 시범서비스로 운영하며 배송로봇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LG전자는 실내외 통합 로봇주행플랫폼의 필

요성을 확인해 통합배송로봇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실내외 통합배송로봇은 4개의 바퀴를 갖춘 로봇으로 바퀴 사이의 간격을

조절해 지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최적화된 주행모드로 이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김상배 미국 MIT 기계공학부 교수와 협업해 운동 지능을 갖춘 차세대 로봇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교수는 4족 보행 로봇 치타 시리즈를 개발한 세계적인 로봇 권위자다.

김병훈 LG전자 미래기술센터장 전무는 “차세대 실내외 통합배송로봇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높아진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5G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로봇이 실내외에서 이동에 제약 없이 사람과 공존하며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창대 수습기자 cd1@metroseoul.co.kr

LG전자

남아공 더반 공장 전소

현지 무장폭도에 습격 받아

LG전자 남아프리카공화국 공장이 현지 폭동으로 사라져버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남아공 더반 공장이 12일(현지시간) ‘무장 폭도’ 습격을 받아 불에 타 전소됐다.

이 공장은 TV와 모니터를 생산하는 곳으로, 이날 오전 전자제품을 약탈당한데 이어 오후에 방화까지 당했다.

현지 폭동은 지난 8일 주마 남아공 전 대통령에 항의하며 시작했다. 당초 주마 전 대통령 고향인 과줄루나탈주를 중심으로 벌어졌지만, 10일부터 경제 도시인 요하네스버그로 확산해 더반 산업단지로도 벌어졌다.

현지에서는 6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도 있었지만, LG전자 공장에서는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 물적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생산 라인인 1개로,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추산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재용 기자 juk@

스포츠세단 버금가는 역대급 성능... 트렁크·가격 아쉬워



제네시스 ‘G80’ 전동화모델

전문·후륜 136kW 전기모터 탑재
제로백 4.9초, 고속주행에도 정숙

과거 전기차를 떠올리면 조용하고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 걱정이 달릴 수 있는 차를 연상한다. 최근에는 단순히 친환경적인 전기차를 넘어 테슬라를 비롯해 포르쉐, 아우디 등 고성능 모델까지 출시되고 있다. 현대차도 아이오닉5, 코나EV에 이어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G80 전동화 모델을 내놓으며 럭셔리 전기차 출시를 알렸다.

이에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 모델이자 대형 세단인 G80 전동화 모델을 시승하며 차량의 가치를 분석했다. 시승은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에서 가평군 마이더스 호텔까지 왕복 약 80km 구간에서, 고속도로와 국도 주행을 경험했다.

G80 전동화 모델의 외관은 기존 내연기관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전장 4995mm, 전폭 1925mm, 전고 1465mm에 완만하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까지 기존 G80 내연기관 모델과 똑같다. 차이점은



제네시스 G80 전동화모델 전측면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후측면

/양성운 기자

찾자면 전면 그릴이 전기차 전용 G-매트릭스패턴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그릴 상단에 위치한 충전구는 닫았을 때는 경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디자인 됐다.

실내로 들어가면 친환경 소재가 대거 적용된 점이 눈에 띈다. 시트와 콘솔, 팔걸이에 천연 염료를 사용한 가죽을 적용했는데 부드러운 촉감이 인상적이다. 또 2열 탑승객을 위한 개별 디스플레이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전기차 특유의 고요함이 전해졌다. 차량의 에너지 흐름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을 확인한 뒤에야 시동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가속 페달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묵직한, 스티어링휠도 가볍지 않아 안정적인 주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가

속페달을 밟으면 소리 없이 부드럽게 굴러간다. 콤포트, 에코, 스포츠 등 3개 주행모드가 있는데 콤포트와 에코 모드에서는 딱 이 큰 덩치를 무리 없이 움직일 만큼만 힘을 준다. 고급 세단 특유의 정숙함과 편안한 승차감도 그대로다. 고속 주행에서도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G80 전동화 모델은 최고출력 136kW, 최대 토크 350Nm 전기모터가 전륜과 후륜에 각각 들어간다. 모터 두 개의 합산 최고출력은 272kW(약 370마력)로 제로백이 4.9초로 스포츠세단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스포츠 모드로 설정한 뒤 가속 페달을 밟자 빠르게 치고 나갔다. 또한 전자의 자세를 잡아주는 시트 옆구리 조임 기능이 활성화 되면서 안정적인

주행도 이어갈 수 있었다. 다만 스포츠 모드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대형 세단이지만 에너지 효율성도 뛰어났다. G80 전동화모델의 복합 전비는 19인치 타이어 기준 4.3km/kWh지만 실제 주행한 결과 6.4km/kWh의 전비를 기록했다.

G80 전동화 모델의 단점은 트렁크 공간과 가격이다. 트렁크 안쪽에 전기모터를 탑재해 내연기관보다 70L가량 공간이 줄어들었다. 어린자녀를 둔 가정에서 패밀리로 구매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 차량 가격은 전기차 세제혜택 후 8281만원(개별소비세 3.5% 기준)이다. 여기에 몇 가지 옵션을 더하면 9000만원을 훌쩍 넘어 1억 원에 달한다.

/양성운 기자 ysw@

두산인프라코어 유럽시장 건설기계 판매 신기록

유럽법인 설립이래 월 최대 매출 달성

두산인프라코어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꾸준한 마케팅을 바탕으로 유럽시장에서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유럽법인(이하 DIEU)은 지난 6월 총 543대의 건설기계를 판매해 법인 설립이래 최대 월간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종전 기록은 2019년 4월에 수립한 504대다.

이번 판매실적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연초 수립한 월 판매 목표 대비 13% 초

과 달성한 수치다. 부품 매출에서도 연초 계획대비 132% 수준인 약 520만 유로의 매출을 달성, 월간 기준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 영국과 이탈리아 등에서의 판매량 증가가 이번 실적을 견인했다. 실제 해당 지역에서 6월 크롤러 굴착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가량 증가했다.

DIEU는 하반기에도 중형 굴착기 신기종 출시, 휠로더 및 굴절식 덤프트럭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SK이노, 창업도약기 스타트업 성장 지원

중기부-창진원 협업 프로그램 참여

SK이노베이션이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 창업진흥원(창진원)과 손잡고 창업도약기(만 3~7년차)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13일 이와 관련 ESG 생태계 확장을 위해 중기부, 창진원이 주관하는 ‘창업도약패키지-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창진원은 ▲친환경 ▲디

지탈 ▲라이프스타일 등 3가지 분야에서 총 50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이 같이 하기로 한 분야는 친환경 분야다. 최근 발표한 파이낸셜 스토리의 그린 전략을 사회적으로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SK이노베이션과 함께하는 친환경 분야 프로그램은 ‘에스케이와 그린 스타트업이 함께 만든다’는 의미를 담은 ‘에그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KT엠모바일

‘쿠폰 득템 제휴 요금제’ 출시

KT엠모바일은 대표 알뜰폰 요금제 ‘모두다 맘껏 11GB+’에 쿠폰과 콘텐츠 혜택을 더한 ‘쿠폰 득템 제휴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두다 맘껏 11GB+’는 KT엠모바일이 보유한 LTE 요금제 70여 종 중 2030 세대 가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주력 상품이다.

‘쿠폰 득템 제휴 요금제’는 매월 제공하는 혜택에 따라 ▲모두다 맘껏 11GB+(지니뮤직) ▲모두다 맘껏 11GB+(Pay 쿠폰) ▲모두다 맘껏 11GB+(기프트쇼) 등 총 3종으로 구성된다. 음성·데이터 제공량은 기존 ‘모두다 맘껏 11GB+’(월 11GB+일 2GB+소진 후 3Mbps 속도 무제한)와 동일하며, 가격은 3만 5200원이다.

/김순복 수습기자 sunbok@

삼성전자

무풍에어컨 미키 에디션 선택

삼성전자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디즈니 컬렉션(사진)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13일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미키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미키 에디션은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 패널에 미키 마우스를 심플하게 형상화해 적용한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무풍벽걸이와 이드 제품 전면 패널과 비스포크 무풍클래식 제품 바람문 패널에 미키 에디션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키 에디션은 패널 액세서리 형태로도 출시된다.



/한창대 수습기자